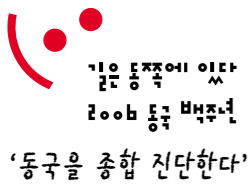


재정 수입 구조 분석



등록금 의존을 매년 증가 수익사업 활성화로 전입금 확충해야

우리학교는 올해로 건학 100주년을 1년 여 앞두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명문사학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는 '동국을 종합 진단한다' 장기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 | |
|-----------------|---------|
| 1. 학교 정책 · 행정분야 | 2. 교육분야 |
| ① 100주년 기념사업 점검 | 3. 연구분야 |
| ② 대외홍보 | 4. 환경분야 |
| ③ 조직 | ④ 재정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등록금이 7% 인상 고지됐다. 이처럼 해마다 높은 수치로 인상되고 있는 등록금은 학교의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져 있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교 측에서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 인상 △교원 임금 인상 △자산적 지출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매년 이와 비슷한 등록금 인상은 우리학교 재정 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학교 수입구

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의존율에 있다. 우리학교 전체 수입 대비 등록금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77.4%에 이어 올해는 79%로 약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이 67.1%인 것에 비해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독립법인 출범으로 교수들의 연구 주수비가 수입에서 빠져나가게 돼 상대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줄어 들고 있는 법인 전입금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인전입금의 경우는 사립대학 평균 법인전입금 의존율이 9.7%인데 비해 우리학교의 경우는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2.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인전입금 중 경상비 전입금의 경우 결산 금액이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학교 재단 법인이 교수와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는 한해 평균 법정부담금이 약 27억 정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5억 원대에 그쳐 20 여 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부금 등 다른 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년 재단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이 인상돼 책정되고 있는 반면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해마다 법인전입금이 줄고 있는 원인은 재단의 학교 수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산원과 수영장에 한정돼 그동안 이렇다 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학교 전산원의 등록 인원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법인 측에서도 이를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더 이상 학교의 재원 확보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 수입원의 다원화와 재정지출의 투명화를 통해 매년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학교 · 교수회 입장차이 커

의사소통 정상화로 해결방안 모색해야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의 개정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수회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 비상총회에는 총회 성사인원을 넘는 15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관한 교수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비상총회는 △교원 및 기본권을 위협하는 주요 제도 현황에 대한 브리핑 △질 의응답 △교수회 부회장 선출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비상총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수들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제도 개정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제도개정들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외평가 결과 교육여건·재정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발전기금의 지속적인 감소, 재단전입금의 열악한 현황 등의 책임이 학교와 법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업적 평가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와 관련해 공동연구 인정환산을 대폭감소와 학술 발표 연구업적 평정 대폭감

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논문계재장려금 변경도 기존의 지원금 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업적 평가 및 보상제도에 관해서도 평가기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대학원 강좌에 대한 교육업적평가 없음으로 인한 대학원 강의 부실화도 우려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 평가제도와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에 관한 교수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교수회는 이날 열린 비상총회 결과 지난 1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에,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정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재단 이사장에게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만약 규정 개정이 지속될 경우 교수들은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가 이렇게 일파파로 확장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수회와 학교 간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회가 비상총회에 교무처장과 연구처장의 입장을 막은 것은 제도로



공론화시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무처장과 연구처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밝혔듯이 교수회가 제도 변경과 관련해 몇몇 부분에서 제도 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들의 주장에도 일리있는 측면이 있고 많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교무위원회에서 연구업적 평가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와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에 관한 안건 통과 여부에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이사회 지난 29일 열려

교원승진 · 부속학교 명칭 변경 등 승인

일산병원 27명 신규교원 임용 안건이 지난 3월 29일 열린 제208차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병일원 교수 21명 교수 승진 등 교원 승진안(58명) △정관변경 △작제개편에 따른 정계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교육기부금 매입 승인 △2005학년도 사학진흥자금 기채 20억 3천만원 차입 등의 안건도 승인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적이 변경된 것으로 지난 이사회에서 명성여자 고등학교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 명성여자 중학교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 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은 학림관과 체육관 사이 부지 18.99평 부동산 매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기타 안건으로 동국대 재단 이사장 대수(代數)산정 기준을 현행 1945년에서 1906년으로 조정, 초대 이사장을 홍철초 스님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년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수영장을 다른 수익사업체로 전환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도 승인됐다.

한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장운 스님 대신 헤림 스님을 새롭게 임명했다.

동국인 등산대회 15일 북한산에서

'4·19혁명 기념 제36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15일 북한산에서 열린다.

동국가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4·19혁명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개최식 및 출발 △중식 및 하산 순으로 진행된다. 출전팀 구성은 4인 1조, 학과 단체팀(50명 이상), 동아리 단체팀(20명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인 1조 팀의 경우 '세계로 가는 동국팀'은 9개팀을 선정 각각 2백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알찬문화 생활팀'은 10개 팀을 선정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또한 단체팀으로는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을 선별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12일까지 학과단체 팀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은 학생처 학생복지실에서 받는다.

본사사령

◇ 임수승기자

- ▲ 김경민 (문과대 윤리문화1)
- ▲ 김혜정 (문과대 영문1)
- ▲ 이봉연 (사과대1)
- ▲ 어예림 (사과대1)
- ▲ 김홍민 (사과대1)
- ▲ 김강숙 (경영대1)
- ▲ 최민성 (정산대1)
- ▲ 문주희 (예술대 문창1)
- ▲ 이봉욱 (예술대 문창1)

- 이상 4월 4일자



영어공부는 어려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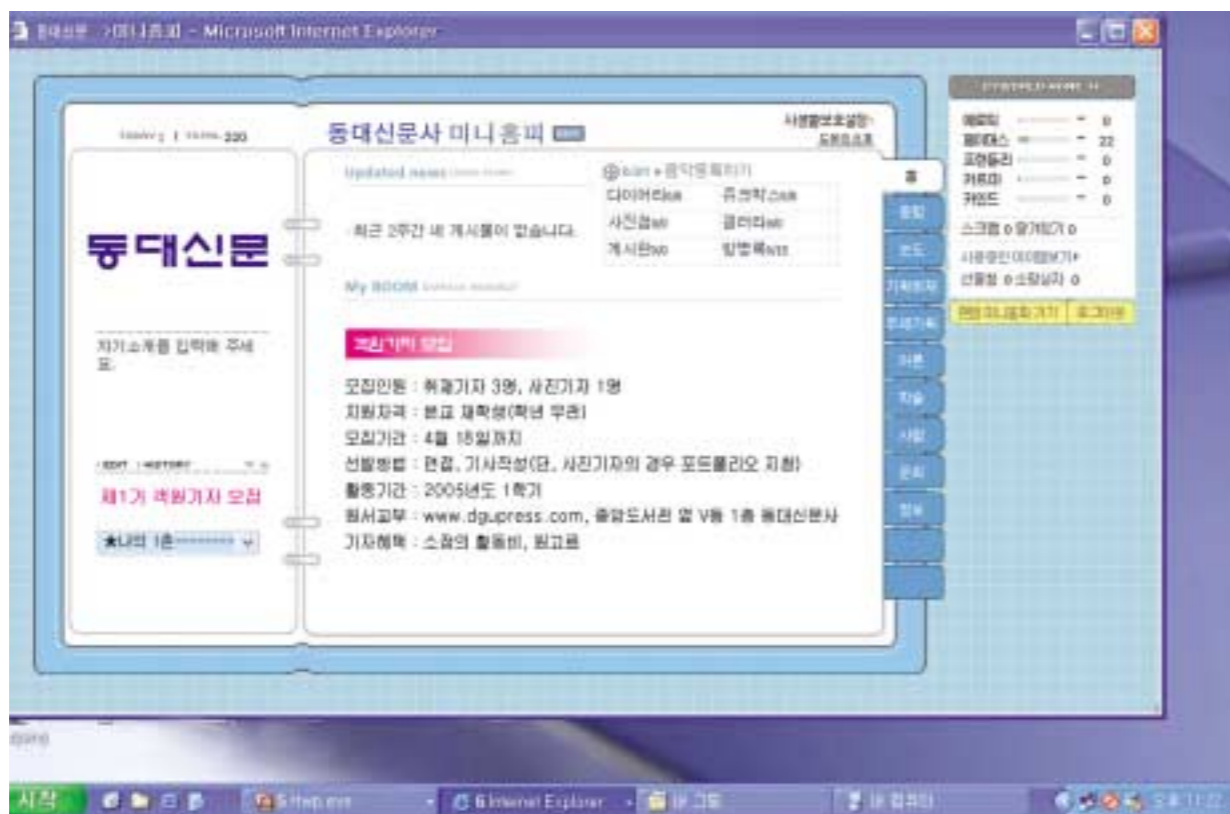
중구청과 우리학교가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취지로 저소득층 아이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광희동 주민 복지센터에서 우리학교 학생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에 일촌 신청하시겠습니까?!”



모집인원 : 취재기자 3명, 사진기자 1명
 지원자격 : 본교 재학생(학년 무관)
 원서접수 : 4월 18일까지
 선발방법 : 면접, 기사작성(단, 사진기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지참)
 활동기간 : 2005년도 1학기
 원서교부 : www.dgupress.com,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기자혜택 :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특전

- ▲ 풍부한 경험과 넓은 지식을 선사해 드립니다
- ▲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 소정의 원고료와 활동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동대신문사

특수대학원 정원 감축 50명 확정

언론정보대학원과 국제정보대학원 통합

2005학년도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및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통합이 확정됐다.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은 지난 200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때 낮은 지원율과 향후 미등록률 증가에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통합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부터 대학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정이다.

감축인원은 총 50명으로 산업대학원 30명,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20명이다. 감축기준은 최근 3년간 등록률 70% 미만 또는 감소추세인 대학원을 우선순위로 하였고 편제정원과 재학생간 편차가 큰 대학원도 정원감축 결정을 내렸다.

산업대학원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최근 3년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고 언론정보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역시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에 비해 급속히 감소했다. 특히 산업대학원은 총 재학생원이 1년 모집인원에도 미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70%미만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04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충원율이 적게는 약 15%에서 많게는 약 50%까지 감소해 대학원 입학 정원감축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과 통합으로 우리학교는 대학원 교육에 있어 질적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교원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이 향상되고 대학원 미충원 인원 50명을 감축할 경우 신규교원 약 10명의 충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교수 제자사랑 결실맺어

박관호 교수 연구장학금 4명 수여



장학금으로 학교에 5억원을 투척한 박관호 교수의 후학사랑이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 25일 박관호 교수 연구장학금 수여식이 이과대 학장실에서 열렸다.

이번 박관호 교수연구장학금에는 이현심(수학사과정3학기), 이주원(물리학사과정1학기), 채광춘(화학사과정1학기), 김태영(생물학

박사과정4학기) 등 총 4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연구 장학생들은 두 학기에 걸쳐 각각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박관호 교수 연구장학금은 지난 2003년 12월에 작고한 박관호 교수가 생전에 학교에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과적 의사를 밝혔던 것에 따라 조성됐으며 앞으로 장학생과 수여금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5개 단과대 학생회 건설

지난달 29일부터 3일동안 진행된 단과대 선거에서 5개 모두 학생회가 건설됐다. 문과대는 경선으로 치뤄졌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투표인원	투표결과			당선자	
	찬성	반대	무효	정	부
문과대	기호1번 1,312명(59.9%) 277명(35.29%)	기호2번 498명(63.3%)	12명(1.5%)	기호 2번 저주철(독문3)	
법대	295명(58%)	268명(91%)	20명(7%)	황준용(법4)	김진영(법3)
사과대	1,746명(55.8%)	941명(96.6%)	22명(2.3%)	11명(1.1%)	유민지(사회4)
공과대	1,068명(54.1%)	962명(90.07%)	76명(7.12%)	30명(2.81%)	우영진(기계공4) 이한동(기계공3)
야간강좌	346명(53%)	332명(95.95%)	9명(2.6%)	5명(1.45%)	김윤연(야간정통4)
졸업준비위원회	38명 (69%)	32명(84%)	2명(5%)	4명(11%)	정현준(토목공4)

상록원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

상록원 옥상 비오톱(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이 오는 5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녹화조성용 생태학습장 및 관련분야 연구를 위한 학습장 활용을 위한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상록원 옥상 약 350평이다.

상록원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와 녹색재단이 주최한 '도심 지역 내 비오톱 조성사업'에 지원해 채택된 것이다. 상록원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녹색재단으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의 지원받으며 우리학교에서도 약 3700여 만원을 투자한다.

6월중에 오픈 할 계획인 상록원 생태학습장은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연학습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우리학교 학생

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충현(산림자원학) 교수는 기구 설치를 통해 '빛물이 저장되는 수차나 인공 녹화를 통한 냉·난방 효과도 연구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축구부, 탐라대와 오늘 경기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오늘(4일) 강창학구장에서 탐라대와 경기를 한다.

이번대회는 '헬멧코리아배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며 오는 6일 광운대와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우리학교는 △광운대 △동의대 △탐라대와 함께 3조에 속해 있으며 조 2위 이상이 결선토너먼트리그에 진출하게 된다.

신임 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산학기술협력센터 설립과 학교기업 사업 적극 추진할 것”



지난 2월 대대적인 직제개편과 함께 인사이드가 있었다. 올해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과 목표를 알아보고 새로 신설된 부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본 사에서는 새로 취임한 처·실장과 부속기관장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 지난 행정조직 개편 결과 연구처와 산학협력단 협력이 강화됐는데.

= 외부 연구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화됐다. 이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따른 것으로서 앞으로 외부 연구기금은 학교 재정은 분리돼 관리된다.

그동안 연구처 연구지원팀에서 맡고 있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 지원금 관리와 교내 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이었다. 산학협력단이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연구처 산하에 산학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 매년 대형국책사업이 늘고 있는데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 대형국책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대형국책사업이 많은 이공계 분야의 경우 다양한 학제간 연구와 함께 산업화 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

업적 평가를 개정하면서 '교내 공모과제사업'을 신설했는데, 이는 대형국책사업에 지원하기 1년여 전부터 먼저 학교가 담당 1억원 정도의 연구기금을 지원

해 대형국책사업 준비를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사회계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회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기 위해 40 여개의 과제를 선정해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엔 개편된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 평가에 대해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 이번 연구업적평가 개편의 핵심은 대외평가 기준을 기본틀로 하여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각종 대외평가 결과가 공개될 계획이므로 대외평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학교의 연구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구인력 절대 부족 등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학교의 연구지원제도 벤치마킹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학교수입으로 환원되는 연구 간접비를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 올 해 추진할 중요사업은.

= 4월 중으로 창업지원단 산하에 산학기술협력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산학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습장소로 이용되는 연구실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학교기업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우리말 불교 개념사전’ 내년 출판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이 내년 개교기념일을 전후해 출판될 예정이다.

불교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학문적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건학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우리학교 불교대학 교수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우리말불교개념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서윤길·불교학)를 중심으로 80여명의 국내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사전은 '인간관·세계관·수행론'으로 분류돼 한국·인도·티베

트·중국·일본·동남아 지역 불교에서 엄선된 대표적인 개념 약 125개의 어원과 출전, 개념의 변천과정, 연구성과, 참고문헌 등의 내용을 담는다. 한 항목당 200자 원고지 150~200장 분량이며 총 1천 쪽 분량의 책 6권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 발간은 일반인에게는 불교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는 계기이자, 불교학의 연구성과를 한 단계 진전시킴으로써 우리학교와 한국 불교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칭찬합시다

본사에서는 2008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환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④ 예의바른 젊은이 이정현(컴공4) 군

예의가 없다면 어른들에게 귀중 듣기가 일쑤인 요즘 대학생들. 그러나 주의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항상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대학생이 있다. 바로 '칭찬합시다' 네 번째 주인공, 이정현(컴공4) 군이다.

– 칭찬받은 소감은.

=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쑥스럽다. 학생선발실에서 2년 동안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마주치는 분들이 많았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분관에 있는 교직원들, 수위 아저씨들, 청소 아주머니들과 인사라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먼저 인사할 뻔했다.

– 학생선발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 고등학생들이나 신입생들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한 것 같다. 즉 골똘하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을 선택

호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 마지막으로 동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인터넷 커뮤니티 다음에 '동국상상' 카페가 있다. 이곳에 예비 동국인들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에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전공분야 아닌 학과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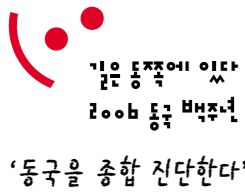
관련 학과의 선배가 직접 대답해 주는 것이 예비 동국인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생협 법인 창립 1주년 행사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협 법인 창립 1주년을 홍보하고 전체 조합원들과 생협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더불어 각종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할인혜택 부여와 추첨을 통한 경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정	행사명	행사내용	비고	
2005. 4. 1 (금요일)	창립 기념식 (상록원 3층)	1) 기념식 시간 : 19:00 2) 행사 ▶ 표창(10년 근속 직원) ▶ 연회 및 생협 임직원 기념품 지급	● 동국관 식당 영일 단속 (18:30)	
	기념일 특식	1) 상록원 2층 학생식당 ▶ 육개장(2,000원) / 제육볶음(2,000원) + [음료+떡] 2) 동국관 지하식당 ▶ 순만두국(2,000원) / 불고기백반(2,000원) + [음료+떡] 3) 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 ▶ 돈가스(3,500원) / 나지볶음(3,500원) + [음료+떡]	● 2,000원 메뉴 → 3,000식 3,500원 메뉴 → 5,00식 ● 음료와 떡은 3,500개 준비	
4. 1~4. 8	경품 행사	구분	경품내역	협찬
		1등(3명)	생활문화유적답사 여행권(세계문화유산)	생협
	2등(1명)	4박 5일 배낭여행 자유이용권(일본)	여행사	
	3등(10명)	복사카드 5,000원권 10매	복사실	
	4등(120명)	2만원 할인권 20명 동국 가방 50명 매장이용권 10,000원 10명 명함 무료제작 20,000원 10명 증명사진 무료이용권 20명	인경원 잡화점 컴퓨터 기획사 사진관	
4. 1~4. 8	창립 기념 주간 할인 행사	1) 문화관 그림 원화 · 테이크아웃 커피 (1+1행사) · 말스터치 set메뉴 주문시 치킨버거 무료 · 통치킨+콜라 2잔(9,500원 → W6,500원) · 사이버거+콜라(3,500원 → W2,500원)	● 음모추첨 4월 12일 PM2시 → 다함관 휴게실 ● 음모함 비치장소 상록관 매점 상록원 매점 동국관 매점 아리수 매점 문화관 그림 ● 3등 이상 당첨자는 생협 조합원에 한함	
4. 1~4. 15		2) 직영매장 ▶ 매점 : 자체 할인 및 업체 할인 품목 위주로 판매 ▶ 서점 : 어학관련, 재고도서 중심으로 할인 판매 ▶ 사무국 : 36주년 4.19기념 동국인 동반대회 (생수, 음료 : 2,000개 지원) 3) 임대매장 ▶ 미용실 : 20%할인권 200장 배포(컷트 제외) ▶ 로즈버드 : 할인 판매(1,700원 → 1,500원), 사은품 ▶ 사진관 : 필름할인 판매, 사은품(10,000원 이상 구매) ▶ 다함관 문구점 : 할인 판매		



종합기획 1. 학교 정책·행정분야 ④ 재정

투자 재원 확보 위한 다양한 계획 필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원은 크게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원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를 학생들의 묵인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는 곧 지속적인 등록금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이외에 다양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시급할 때이다.

그 중 사립대학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를 높이고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활성화시켜 연계되는 수익을 학교에 전출시키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는 수년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학교 전산원과 수영장에 한정돼 있

어 전입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건국대의 경우는 학교 법인 측에서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체육 부지를 활용해 주상복합 건물과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진 '스타 시티'를 건립 중에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수익용 시설의 경우 오는 2006년 완공 이후에는 매년 3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학교 측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영리 법인이 실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학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외부 기업 등 민간 자금을 이용해 학교의 주요 연구·편의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제기되고 있

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25일에 사립대학 캠퍼스에 민간기업·지사체 등이 시설을 짓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오던 학교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 사업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원석 사무관은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던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에서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연구소, 체육시설 등의 건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이미 유치했거나 유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숭실대 기획조정실의 이형민 과장은 "학교의 재정 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학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

간 기업의 자금을 수주해 기숙사를 설립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이를 계획하고 민간 기업들과 협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기획 예산팀 역시 학교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고민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 역시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 학교 역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 측에서는 일산의 제3캠퍼스, 필동 병원 부지 등을 활용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요망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우리학교 재정 지출 분석

교육의 질 향상위해 교비환원을 높여야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 한 지 16년. 물가상승지수보다 두 배 가량 인상됐다. 1999년 우리학교 공학계열에 입학한 학생 등록금이 260여 만원이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번학기 등록금은 360여 만원이 된다. 6년 사이 등록금이 무려 1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그럼 교육여건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6년 전보다 약 25% 높은 교육을 받고 있을지 궁금하다.

대부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등록금 인상을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질'에 문제를 느낀다는 말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교비환원율'이 있다.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관구입비 △학생경비 △교원인건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등록금 수입 중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자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일단 100%는 되어야 등록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도 우리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은 약 106%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립대 평균을 조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지난 등록금 환원율을 보면 1999년도는 121%, 2000년도는 107%, 2001년도는 108% 정도로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투자되지 않는 비용은 얼마나 될

까. 우선 교육비의 지출은 자산적지출과 이월적지출이 있다. 자산적지출은 법인의 자산 증식을 의미한다. 사립대학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므로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인 전입금 의존율은 2.5%인데다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에 우리학교의 자산적지출은 12.29%나 되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 평균인 약 7%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도서관구입비 역시 매년 수억원 가까

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03년을 보면 31억원이 책정됐지만 20여억원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해에 다시 37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도서관장이 거의 없이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실정이다"고 말해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1인당 도서관구입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2000년 8만 2천원에서 2003년 8만 8천원 정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 십 만원 오른 등록금에 비하면 증가는 적은 편이다.

이밖에도 실험실습비와 교수연구비 등도 큰 변동없이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등록금은 교육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또한 우리대학은 지난 몇 년 간 교육강화를 목표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생경비부분의 예산이 10%정기 책정된 것은 '아이러니'로 비춰진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70%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학사운영을 위한 등록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재원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교비환수 상황을 점검해 본다

의료환경 개선 통해 2006년까지 환수 계획

우리학교는 불교병원 교비 유용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3일,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41억 5,900만원의 금액을 교비로 환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액 중 100억원은 재단이 소유한 일부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마련하고, 나머지 241억원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경주 용강동 한방병원과 포항 한방 병원 신축부지 등의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환수된 총 금액은 지난해 12월 법인의 자산 중 일부인 65

억원으로 이 금액은 2004년도 결산에서 전입금으로 편성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환수된 금액은 고정자산 매입 등에 활용될 계획으로 필동 테니스장 부지 매입 등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매각을 마친 경주한방병원을 통한 70여억원은 전체 금액이 환수되는 대로 곧 학교 예산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만성적자로 현재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는 포항병원을 비롯한 그 밖의 의료원들의

단계적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점차 남은 금액들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하현석 사무관은 "현재까지는 환수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비가 유용돼 내려진 방점인 만큼 들어오는 금액이 철저히 교비 예산에 편성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사설

대화 통해 발전적 모습 찾아야

지난 30일 상록원에서 '교원수호 등을 위한 비상교수 총회'가 진행됐다. 오늘(4일) 있을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연구지원·업적평가제도' 규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교수들이 모인 것이다. 원만한 진행을 이유로 학교장들의 참석까지 저지된 채 회의는 진행됐다.

이날 비상총회는 학교당국의 교육·연구수준을 향상시킬 제도이므로 후에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자는 입장과 교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교권침해라 보는 입장차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련된 자리였다.

연구지원·업적평가는 현재 1년에 논문 한 편 게재하지 않는 정교수가 100여명이 넘는 상황인데다,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지난해부터 제도 개편 관련 작업을 꾸준히 하였고 지난달 10일 학장·학과주임교수 설명회와 다음달인 11일 교무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교수들에게 전달했다"고 충분한 의사전달이 있었음을 표했다. 하지만 이를 개편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교수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지난달 14일 전달받은 제도 개편안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다. 심지어 비상총회에서조차 이를 이해하지 못한 교수들도 있었다.

현재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는 지난 1일 학교 측에 △규정행위 중단 △규정 통과 시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공문까지 보낸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싸움으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서는 그동안의 관련작업과 설명회로 교수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앞두고 많은 교수들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이 대화에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일로 전진하는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교수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조성민 bristo77@hotmail.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김주안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장	장성재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정경훈		
편집장	황주상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보리소

마음의 병을 막는 방법

장천기라는 사람이 "나는 침대에 누워서 몇 년 동안 어떠한 일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어떠한 일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후에는 역지로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속박하기 마련이었고, 또한 하나의 행상에 마음을 의탁해야 했다"고 말하자, 사마온공은 "나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방법을 얻었는데 단지 하나의 중(中)자만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좌우명이나 생활지침을 세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확고한 주관을 갖기 어렵다.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좌우명을 지기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것에 너무 얽매게 되어 오히려 지침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래 사람 마음에는 선함만이 있으나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욕심이나 개인의 감정이 섞이기 때문이다. 욕심이나 감정으로 결국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치우치는 판단을 막으려면 항상 고요한 상태에서 본래 마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감정이나 욕심 따위가 섞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中)의 도리라고 한다. 중(中)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중의 상태에서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병을 막는 방법이고 진정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내심에서 조용히 찾는 것이다.

자칫 집착으로 이끄는 좌우명을 버리자. 대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래 착한 나를 찾자.

유 훈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세계화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 및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 당사국들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세계화의 공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다양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한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니라 국제금융자본이라는 사실이다.

서구자본, 국제금융시장 주도

물론 국제금융자본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각종 헤지펀드나 연기금펀드(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등)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막대한 자금이 대체로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자본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 가운데는 오랜 전통을 가진 금융제법의 자금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제금융자본의 위력은 한 나라의 금융시장을 흔들며 놓을 정도로 막강해졌다는 사실이다. 1997년에 발생한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그리고 멕시코와 남미의 금융위기는 모두 이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의 위력이 이와 같이 막강해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자



논단
이영환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화와 국제금융자본

유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이 지대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저서 '세계화와 그에 대한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 IMF가 부당하게 무리한 자본자유화를 강요함으로써 멕시코와 한국과 같은 개도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를 역임한 스티글리츠로서는 쉽지 않은 발언이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IMF의 주요간부들이 골드만 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이 막대한 금융자본을 운용하는 투자은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IMF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자본 자유화에 따른 이해관계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막대한 국제금융자본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직도 여전히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해 제약 받고 있는 신흥부문의 교역에 비해 자본의 이동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은 첨단 금융기법과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원천은 자본수지에서 막대한 흑자를 실현함으로써 쌍둥이 적자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달러화의 약세 또한 쌍둥이 적자를 줄이고 나아가 가서 미국의 대외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한해서 보면 국제금융자본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40% 이상을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기업에 국한해서 보면 이들의 지분율은 더 증가한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실체로 그 자리를 확

고히 하고 있다. 물론 외국 자본이든 토종 자본이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는 차이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외국 자본이 진출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졌으며 첨단 금융기법이 도입되는 등 시장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자본에의 종속이 심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자본, 국내금융시장 장악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장악한 외국자본은 이제 그들이 의도한 대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주식 매도로 인해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외국 자본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장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량기업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고 있다. 나아가서 은행을 장악한 외국 자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있는 가운데 언제라도 그들의 모체인 국제금융자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에 대표되는 삼성전자나 은행의 대표적인 국민은행은 비록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경영하고 있지만 소유권면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은 세계화로 인한 공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자본의 지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이것이 필자의 기우에 그치지기를 바랄 뿐이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견보 : dgupress@dongguk.edu

총장의 첫번째 편지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학교의 변화와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금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구성원 전체의 단합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동대신문은 이번 호부터 중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총장의 편지'를 특별 기고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캠퍼스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날씨는 쌀쌀하기만 합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불을 켜고 연일 격무와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학교 경영자인 총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지, 과격적이고 급진적인 인사조치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지나치게 옥죄어오는 업무 압박감에 즐거운 기분이 모두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런지,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들을 갖기지나 않은지, 격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봄은 왔어도 풀향기 꽃향기가 날리지 않으니 봄 같지가 않다"는 중국의 고사성이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구절이 제 마음 속에도 저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라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학교사랑과 동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믿음을 저는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새로운 동국 100년의 미래를 닦는 굳건한 초석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봄 같지 않아도 머지않아 봄이 오고야 마는 것처럼 조만간 우리 모두의 가슴이 즐거운 한마음으로 뜨겁게 데워지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서늘한 하현달이 하늘 한 편에 걸려 있는 늦은 밤, 동국대학의 불빛이 서울 남산과 경주의 남산을 함께 밝히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저 신라의 불국토의 꿈이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오늘 이 땅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시는 동국정신의 도반(道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미래 100년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묵묵히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보기 위해 저 자신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옹양정진 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믿고 아껴주며, 함께 당기고 밀면서, 동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수레바퀴를 밤하늘의 빛나는 보름달처럼 우리 하늘에 걸어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홍기삼 합장

열린글터

한·미 불평등 관계 개선돼야 행정당국 적극적으로 나서길

며칠 전 경기도 팽택시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주변 업소들을 상대로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기준을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힌다. 업소 영업시간을 미군사령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 가 하면, 여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신상카드를 부대에 제출하고, 해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군임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입하는 업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말이다. 엄연히 한국사람이 한국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세금 또한 해당 자치단체에 내고 있는 만큼 해당국의 행정기관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군이 업소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당연히 이에 따른 부차용도 생겨났다. 미군 헌병들이 외국인 전용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시로 금품과 성상납을 받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관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앞서 지적한 미군 헌병들과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지역주민과 미군간에는 갈등의 골만 깊어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세를 구태어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한국땅에 주둔하는 한, 한국인과 미군은 어울려 살아가갈 수 밖에 없다. 불평등한 협약을서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박윤아(사과대 신병3)

혼자살기 메마른 세상 내 옆의 이웃을 생각하자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여기 저기 걸려있는 좋은 옷을 사 입고,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한다.
모두 좋은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세상이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참 메마른 세상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눈감아

보지 못한다면, 어느새 무감각한 혼자가 되기에 충분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속에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는,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내가 되려할 때 다시금 나를 타이르는 책 한권이 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이 책은 최민식 사진작가와 조은 시인이 공동으로 출간한 책이다. 옛날 사진들과 짧은 글귀들이 전부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마음을 적시는 책이다.

"가족이라는,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만이 어둠을 역전시킨다"라는 책 앞의 글귀 하나도 이 책의 전부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옆의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 책을 조심스럽게 건네 본다.
이동선(사과대 사회4)

대마흡연 합법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대마흡연을 둘러싼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계기로 대마의 비범죄화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입장표명을 비롯해, 한국마약범죄학회의 합리적 대마정책 수립 촉구 등 상당부분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는 무엇일까? 삼에서 추출하는 대마는 잎과 꽃에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것이 대마초이며 이는 사고력·주의력 저하·망상·흥분을 일으키고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마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롭고 이를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를 비범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합법화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대마가 합법적이든 아니든 소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대마를 사용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 해악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따라 갈 이유도 없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법적인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마흡연의 합법화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황우영(정신대 멀티공4)

독자 사진첩



갯벌 사람들과 갈대 ... 서해안 안면도에서 지난해 '0B-YB 연합촬영' 중 찍은 사진. - 사진예술연구동아리 '동그라미'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4/4)	참치찌개 (1800) 탕수육 (2000) 하이리이스 (2000)	부대찌개 (1800) 치킨가스 (2000) 떡볶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떡배기불고기 (3800) 닭조림 (3500)
화 (4/5)	쇠고기해장국 (1800) 간자장밥 (2000) 찌개백반 (2000)	사골곰탕 (2000) 닭도리탕 (2000) 김치볶음밥 (1800)	된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불나물비빔밥 (3500)
수 (4/6)	돈갈비김치찌개 (2000) 쇠고기볶음밥 (1800) 닭조림 (2000)	쇠고기국밥 (1800) 중국식볶음밥 (2000) 돈육계란장조림 (2000)	된장찌개 (3200) 제육쌈밥 (3800) 삼치구이 (3500)
목 (4/7)	양지탕 (2000) 치킨볶음밥 (1800) 제육갯잎볶음 (2000)	김치탕 (2000) 키리리이스 (2000) 신채비빔밥 (1800)	된장찌개 (3200) 설렁탕 (3500) 해물탕 (3800)
금 (4/8)	손만두국 (2000) 불고기 (2000) 콩나물비빔밥 (1800)	육개장 (1800) 제육볶음 (2000) 간풍기 (2000)	된장찌개 (3200) 돈가스 (3500) 낙지볶음 (3800)

달하나 천강에

인문학 속에서 찾아보는 존재 의미



임 호 일
문과대 독일학과 교수

것을 수식하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제목의 원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후자, 즉 가벼움을 수식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설을 읽어보아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가는 (인간)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가벼움을 잡아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콘데라의 그 소설을 읽은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난 그 소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 소설의 제목을 이따금 떠올린다.

이십 명에 달하는 생명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어느 살인자의 마스크 속에 감추어진 당당한 얼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식과 어머니가 공모하여 아버지(남편)의 살해를 시도한 패륜모자, 인간해방이라는 미명 하에 타국을 침공하여 인간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끌어버리는 저 강대국 - 이렇듯 인간 존재를 한 없이 가볍게 만드는 사회에서 난 흥측한

별로로 '변신' 된 후 가족들로부터 버림 받는 카프카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소외를 짐작한다.

내가 느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렇듯 생명경시 풍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물려준 고귀한 얼굴을 서슴없이 성형사의 칼에 맡기는 외모지상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매매 사기를 일삼는 파렴치한,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일단 기자들(국민) 앞에서는 진실이라고 능청맞게 지껄여대는 이른바 지도종 인사라는 사람들 - 이렇듯 인간의 정체성(개성)을 유린하고 이렇듯 약자를 등쳐먹고 이렇듯 보통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행하는 권력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난 인간 존재의 가벼움에 비애를 느낀다.

이러한 존재의 가벼움 앞에서 이제 나의 인내심은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듯 하다. 그래서 나는 소외와 비애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소외와 비애가 내 삶의 공간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내가 아직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저 밀란 콘데라 같은 작가들이 이렇듯 존재를 가볍게 만드는 세상을 부단히 고발해 대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자는 전쟁을 지휘한 장군(또는 군 통수권을 쥔 대통령)의 묘일 뿐, 승전국의 병사들조차도 패자일 뿐임을 고발하는 브레히트 같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기쁨을 찾는다.

인문학이 외면당하는 시대에 내가 인문학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을 제일 원리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상생의 세계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문학) 속에 있다는 신념. 이것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북극점에서 날아 온 소식 ③ “드디어 85도 넘어서다”

박영석 동문은 본고 주최로 일년 앞둔 건학 100주년을 빛내기 위해 북극점 등정을 시작했다. 이에 본사에서는 동아닷컴에 협조를 구해 최근의 근황을 전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공기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워서 쪼그라들었다.

▶ 3월 29일 원정 21일째 : “드디어 85도를 넘어섰다” 드디어 북위 85도를 넘어섰다. 만 20일 만이다. 한가지를 이뤄놓으면 항상 밀려오는 그 무엇...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남극으로 북극으로 히말라야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이제 걸어진 길이가 겨우 200여 Km. 앞으로 최종 목적지 북극점까지 550Km도 더 남았다.

아직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서인지 완전히 시커먼 바닷물이 다 드러난 그린리드는 만나지 못했다. 발을 옮길 때마다 휘청휘청한다. 한마디로 고무얼음이다.

▶ 3월 31일 원정 23일째 : “그냥 나도 저 비행기 타고 갈까?” 10시쯤 땀을 뺐을까? “왔다”라고 외마디를 지르기도 전에 비행기는 야속하게 우리를 지나쳐 북으로 날아가 버렸다.

12시 다시 비행기가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를 뱅뱅 돌기만 하고 내려앉을 생각을 안한다. 불어오는 불안감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 오늘은 임시 휴업이다. 일단 텐트를 치고 화이트아웃이 거저 기운을 알려주는 베이시캠프가 야속해. “왜 이렇게 춥냐?”고 괜한 고함을 쳤다. 영하 55도라고 한다. 박대장과 정찬일 두 사람 코가 동상에 시달려 색깔이 질어지더니 오늘은 아예 물집이 생겨났다. 이게 없어지면서 마치 마치미라처럼 수분이 빠져 말라버리면 속수무책인데 걱정이야. ▶ 3월 27일 원정 19일째 : “오늘은 북극도 휴업이다” 일단 텐트를 치고 화이트아웃이 거저 기운을 알려주는 베이시캠프가 야속해. “왜 이렇게 춥냐?”고 괜한 고함을 쳤다. 영하 55도라고 한다. 박대장과 정찬일 두 사람 코가 동상에 시달려 색깔이 질어지더니 오늘은 아예 물집이 생겨났다. 이게 없어지면서 마치 마치미라처럼 수분이 빠져 말라버리면 속수무책인데 걱정이야.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

동대신문, 봄 햇살보다 더 따스하길

지나호의 핵심사상은 단연 선거에 대한 기사였다. 후보들의 사퇴소식과 단과대 후보들의 인터뷰까지.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의 모습을 강의실에서 봐왔는지라 더욱 눈길이 갔다. 그들이 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어떤 공약들을 펼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덕분에 나의 선택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나의 눈길을 끈 기사는 방송 프로듀서 직업 체험이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동대신문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신문에도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듯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기사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시해준 것이라 그런지 마음에 더욱 와 닿았다.

눈으로만 보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직업의 특징에 대해 열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주는 방식이라 그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거나 혹은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 유의한 기사였던 것 같다.

어느새 신문을 다 읽어 내려간 나는, 학교에 대한 정보나 생각, 그리고 지금도 함께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이지만 평범하지는 않은, 기사를 보고 살포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훈훈한 내용을 더욱 늘려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났다.

봄의 따스한 햇살보다 더 환한 이야기로 수놓아지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라며! 이예나(문과대 영문3)

미아리

발전을 위한 선택

▲네르바,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약 100여년 동안 로마의 평화(Pax Romana) 시대를 이끌었던 5현제(賢帝)로 불린다.

이들은 재위기간동안 왕위의 부자 세습이 아닌 원로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다음 황제로 지명했으며, 선견지명과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번창과 안정을 꾀했다.

▶ 6일 개최하는 임시국회예상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설치법'을 두고 교육부와 문화부, 예술대학과 한예종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예종에 석·박사 과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초 실기 중심이라는 설립 취지를 가진 한예종이 국가의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법안의 통과를 독재적 문화예술 권력을 비호하는 길"이라는 비판과 "실질적인 대학원과정에도 해당하는 전문사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인증받는 학위를 받지 못하

는 것은 불합리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예종의 석·박사 학위 과정 논란은 93년 개교 이래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6년 전에도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이 상정됐다가 기존 대학들의 반발로 폐기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는 데에 있다.

▶6년만에 다시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 각자의 주장이 완고한 눈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서로 '특혜'나 '역차별'이니 하며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뺏기지 않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만 보일 뿐이다. 모든 것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문화예술교육계의 현재'가 필요할 때이다.



최민희 문화부장
mh705@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별리(別離)

김민부

어찌노
민들레꽃은 흩어지고
우리 맨 처음 만난던 여름 달밤의
반딧불 같은 나날은 죽고
강물 우에 별은 뜨고
네 머리카락울

옛날로 옛날로 미는 바람은
몇 마리 새들은
허공에 띄우고
우리 아무 말 없다가
어찌노
민들레꽃은 흩어지고

다소 경박한 비유를 동원하자면, 동국문학은 김민부(金敏夫:1941~1972)라는 시인의 무덤에 훈장(勳章)을 추서해야 한다. 짧았으나 뜨거웠던 생애와 짝한 그의 시들을 언제 우리가 옮겨 한번 들여다보았는가. 시의 별들이 강물을 이루는 동약의 하늘이지만 그만치 빛나는 별이 어디 그리 흔하던가.

그가 문학중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거나 이 언덕에서 그를 추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유쯤으로, 우리가 그의 시업(詩業)을 상찬하지 않는다면 고개를 가우뚱거리기 사람이 저승에도 많으리라. 고등학교 시절에 신춘문예를 통과하고 나이 열다섯에 시집을 가졌던 사람. 미당(未堂) 어르신께서 보시고 "시 참 좋다. 좋다!" 하셨다는 사람. 시를 쓰러 세상에 나온 귀신이었던 잠깐 사이에 '갈' 같고 '꽃' 같은 시들을 와르르 쏟아내고 서둘러 떠난 사람.

길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저 극진한 사랑의 노래 '기다리는 마음'에서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를 이승에선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일출봉 너머 월출봉 너머 저쪽 세상에 가서 기다려야 할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기기를 물어보라. 남산 소나무를 흔들며 지나는 바람결에 요절한 천재 김민부의 전설이 들려올지도 모른다.

윤제림
시인·서울예대 교수

2005학년도 입학성적 우수자 가전공 신청

- 신청 대상**
2005학년도 신입학생 중 전형유형별(수시 1, 2차 및 정시 가, 나군) 모집단위 정원의 입학성적 상위 우수자 (대상자 명단 : 단과대학 교과과 비치)
- 일 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각 단과대학 교과과
나. 접수기간 : 2005. 4. 6(수) ~ 4. 8(금)
다. 배정결과 공고 : 2005. 4. 22(금), 홈페이지 및 각 단과대학 게시판
- 배정 기준**
가. 원칙적으로 신청자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내 개설전공 중에서 배정.
나. 신청원 작성시 2지망까지 지원.
다. 특정전공으로 희망자가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별도 원칙 적용.
- 제한 사항**
가. 대상자가 가전공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1학년 과정(계절학기 포함)이수 후 다음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전공에 우선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
(1) 취득학점이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할 경우 (140학점 졸업학점 기준시 1학년 수료학점은 35학점)
(2) 누계평점평균이 3.0에 미달할 경우
(3) 1학년 1학기 및 2학기 수치를 순차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예 1 : 2004년 1학기 이수 / 2004년 2학기 휴학 / 2005년 1학기 복학 / 예 2 : 2005년 1학기 이수 / 2005년 2학기 휴학 / 2006년 2학기 복학
나. 1, 2지망에 모두 탈락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추후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배정기회 부여.
- 신청 절차**
가. 대상학생은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정성과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소속된 모집단위내 전공의 우선순위를 2지망까지 정하여 배정희망 전공을 결정.
나. 작성된 신청원은 지도교수 확인란에 싸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제출.
다. 가전공 신청원의 신청내역은 접수 후 정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 기타**
가. 신청기간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는 우선 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학생과 동일한 전공배정 기회만 부여.
나. 가전공에 배정된 경우에도 전공담임을 통하여 전공을 변경하고자하는 배정자는 일반 재학생의 전공신청 기간에 타전공으로 변경 신청 가능.
다. 1학년 수료요건 및 성적요건 충족여부는 1학년 겨울 계절학기 취득성적까지 합산하여 확정.
라. 기타 문의사항 : 교무처 학사지원실(2260-3035) 또는 해당 대학 행정지원실

2005년 동국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무료 간기능 검사 및 한방 치료

- ▶ 대상 : 동국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1.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바이러성 간염으로 진단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별한 간질환으로 진단 받은 적이 없으나 평소 음주, 과로, 비만 등으로 간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 ▶ 비용 : 검사 및 약(한방 약) 처방 및 한약 무료.
- ▶ 약 복용 기간 : 2~3주
- ▶ 방법 : 의료보검증이나 학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 한방병원에서 설문지 작성 및 사전 검사(혈액검 사전 6시간 정도 금식) - 결과 개별통보 후, 투약(보존식) 2, 3주 - 강남한방병원에서 사후 검사 - 결과 개별 통보
- ▶ 기간 : 2005년 4월 4일 ~ 2005년 5월 31일
- ▶ 참고 사항
1. 약복용 기간중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음(금주 등 불필요)
2. 검사 결과 투약이 제한될 수도 있음.

동국대학교 보건소 · 강남한방병원

졸업요건 영어패스제 토익시험(4월) 시행

1. 접 수 : 4. 6(수)~4. 15(금) 9:00~17:00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2. 시 험 : 2004. 4. 23(토) 10:00~12:30 혜화관 1, 2층
3. 대 상 : 영어패스제대상자 및 일반모의의 신청자
4. 접수시 지참물 : 반명함사진 2장, 신분증(본인만 접수 가능)
5. 응시료 : 5,000원
6. 시험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분필, 연필(샤프)
7. 문 의 : 국제교육원 (혜화관 1층, 2260-3471, 3590)
8. 주의사항 : 가. 10시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재일 '조선' 인 작가 김석범 초청강연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소장 한만수)와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재일 '조선' 인 작가 김석범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언어, 민족 그리고 세계문학"이라는 제목의 이번 초청 강연에서, 작가 김석범은 자신(재일조선인)이 '과거 지배자의 언어', 즉 일본어로 문학 하는 의미와, 분단된 조국에 의해 버림받고 반세기 동안이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의 고독한 투쟁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나의 속에는 젊은이들과 달리 조선어가 확실히 들어 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형성해 온 것은 일본어였다. (중략) 나는 우리(재일조선인)작가의 일본어가 가지는 식민주의 성격으로부터 지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나의 의식과 육체를 지배하는 언어로부터 자신을, 아니 언어 그 자체를 어떻게 해방시킬까? 앞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은 식민주의의 소산이라고 말했지만(그것은 또한 조선어의 부정의 산물이다), 그 바탕에는 내가 지금 말한 의 미에서의 일본어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강연제목 : 언어, 민족 그리고 세계문학
일시 : 2005년 4월 6일 수요일 15:00 - 17:00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관 모의법정
주최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일어일문학과
후원 : 국어국문학과

-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은 1925년 10월에 제주도에서 출생.
- 1957년 [간수 박사방과] [까마귀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일본 문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함.
- 1965년 5월부터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의 기관지 『문학예술』에 한국어로 4·3항쟁을 배경으로 한 『화산도』를 연재하기 시작함.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1983년 이후 일본어 장편소설로 재창작되기 시작하여 현재 7권(文藝春秋)까지 출간됨.

*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집 : 『까마귀의 죽음』(김석희 역, 소나무, 1988) 『화산도』전5권, (이호철 김석희 역, 실천문학사, 1988)

이주의 학술키워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와 함께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용어를 무의식중에 자주 접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라틴어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1988년 미국 제록스(Xerox)사의 팰로 알토(Palo Alto)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자신의 논문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의식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

마크 와이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유선과 무선 그리고 근거리 무선 사이에 끊어짐이 없는(Seamless) 통신망이 실현됨으로써 누구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했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니다.

둘째, 컴퓨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Invisible)이어야 한다. 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해당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 존재를 확실치 인식하면서 사용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이다.

셋째,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에 있어 어디에서나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는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는 이용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크 와이저는 컴퓨터의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춰 컴퓨터의 진화과정을 새롭게 정의했다.

제1의 물결은 한 대의 거대하고 고가인 컴퓨터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인프레임시대로, 제2의 물결은 한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로, 그리고 제3의 물결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내장형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로 예측했다.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제시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 칩의 가격하락과 소형화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집을 내장시킬 수 있게 되었고 센서(Sensor) 기술의 향상으로 센서를 통한 사람의 식별과 위치 확인이 용이해졌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물간의 통신이 훨씬 쉬워짐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기술로는 어디에서든 컴퓨터를 자신의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술 및 보안 기술, 누구라도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한 하드웨어 기술(출력기술, 입력기술), 물리적인 장치를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연결해 주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미래 핵심성장 동력

국내에서도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정부는 'IT839 전략'이라는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IT839 전략을 경쟁력 높은 미래형 핵심 성장 동력으로 향후 10년 내에 1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넘어서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을 위한 중장기 안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다.

IT839 전략은 WiBro, DMB, 홈 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B, 인터넷 전화 등의 8개의 핵심 서비스와 광대역 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IPv6 등의 3개의 핵심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홈 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등의 9개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IT839 전략이 모두 구체화되어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하면 가정, 직장 등 우리 일상생활 공간은 편리성,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하여 가정 내의 다양한 기기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동되어 원격제어 및 속도, 온도 조절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직장에서는 RFID를 통해 물류, 배송, 재고 관리, 고객 관리 등에서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그리고 휴대 단말기를 통해 동영상 메시지 및 위치 확인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모바일 인증 및 결제 등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술 및 인증 기술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반 기술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키워드 선정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역기능

“새는 정보를 막아라”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생활 양식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단말기 하나로 차 안에서 길을 안내받거나,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는 물론 긴급 출동 지시까지 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전파만으로 상품의 성능 파악과 가격제산까지 할 수 있는 전자태그시스템 등이 한 예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유비쿼터스가 조성하는 특수환경을 범죄무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전통적 형사 사법권의 개념이 퇴색되는 결과를 야기해, 범죄대적의 재검토 및 각급 법집행기관의 변신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정보유출문제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이 관리소홀 또는 불순한 동기로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소프트웨어의 등장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가급적 많이 보유하려는 관리조직의 기본적인 '속성'을 자극하고,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수집된 신상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보유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첫째, 사생활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도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호소해 해결이 안되고, 스스로 해결하기도 곤란한 개인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는 욕구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도청에 대한 폭넓은 수요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더불어 사생활침해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간의 갈등이나 법적분쟁을 회피대로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청만큼 유용하고 확실한 수단도 없을 것이다. 비록 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이더라도 일단 현실의 사실을 확인한 후엔 소송과 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잡아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유출의 실행법을 알려주는 영상물과 책자가 도처에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컴퓨터기술로 범죄로 비행을 저지르는 내용의 영화나 비디오들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해킹과 같은 범법행위를 탐닉하게 만든다.

이성우
전자공학 박사

되고 있다.

범죄로 이어지는 정보유출

범죄목적에 의한 정보유출은 첫째,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내부자 범죄), 둘째, 정보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여 유출해 가는 경우(외부자 범죄), 셋째, 정보취급자와 정보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합동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내·외부자 공동범죄)로 대별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자발적인 행동과 비자발적인 행동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초보형태의 정보유출에 속하는 반면 둘째, 셋째 유형은 한층 진보된 형태의 정보유출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두달 동안 500여건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넘겨진 개인정보들은 불법감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침해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불법도청행위 232명, 도청기 수입·제조·판매·유통행위 128명, 개인정보유출이 89명, 기타 51명이었다. 피의자들의 직업은 심부름센터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통신장비 판매업이 139명,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이 23명 등이었다.

정보유출의 원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보유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첫째, 사생활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도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호소해 해결이 안되고, 스스로 해결하기도 곤란한 개인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는 욕구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도청에 대한 폭넓은 수요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더불어 사생활침해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간의 갈등이나 법적분쟁을 회피대로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청만큼 유용하고 확실한 수단도 없을 것이다. 비록 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이더라도 일단 현실의 사실을 확인한 후엔 소송과 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잡아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유출의 실행법을 알려주는 영상물과 책자가 도처에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컴퓨터기술로 범죄로 비행을 저지르는 내용의 영화나 비디오들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해킹과 같은 범법행위를 탐닉하게 만든다.

2003년 3월 시골의 어느 중학생이 혼자 인터넷

해킹사이트를 드나들며 5일만에 파괴력이 엄청난 정보유출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례가 보고됐다. 도덕적 죄의식이나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재미로 손쉬운 발취해본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단지 호기심과 능력과시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조·유포하는 사례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이들의 사이버 윤리·규범을 사회적으로 조화시키는 문제 또한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급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첨단 단말기 도구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은 컴퓨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나 전화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등 무선에 대한 간섭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근래에는 컴퓨터작동탐지기, 전자우편탐지기, 위성전화탐지기 등을 도청에 이용해 개인정보유출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고 회비를 납입해 야 접속이 가능한 CATV나 주문식비디오와 같은 한정수신장치(conditional access system)에 전송되는 음향과 영상 등에 대해서도 도시청(監視聽)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머지않아 우리 실생활에 완전히 도래할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해 정보유출원인 등 상기 문제점들의 대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유출 기회 제거해야

가장 중요한 대책은 범행기회 제거이다. 즉, 정보유출의 기회를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 법규 정비와 컴퓨터사용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만으로 정보유출행위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기회의 제거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임의 접근을 저지하는 기술과 정보통신망상에서 정보가 위조·변조·도난·훼손되는 것을 막는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침입탐지와 내부자 부정 차단 기술 및 정보 저장과 전송에 따른 피해가능성에 대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취약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벽(Fire wall), 전자인증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즉, 네트워크와 서버보안 혹은 방화벽(Fire wall)분야에서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보안서비스 대행업체의 정책적 육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는 21세기에 인간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보유출 문제부터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다.

최권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중당도서관 신작도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치가와 다쿠지(市川拓司) 지음 / 양은옥 옮김,
랜덤하우스 중앙, 2005



죽었던 가족이 잠시라도 돌아온다면...? 유령이 아닌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아내는 죽은 사람이 가는 별, 아카이브에서 돌아온 결과. 실은 살아있었던 결과. 수채화같이 답답하고 아련하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가족이야기.

인문과학실 소장. (819.935 18130양)

경영개발과 취업전략
박양근 지음, 무역경영사, 2004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시행착오를 피도록 줄이고, 효과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책. 1부에서는 직업선택이론과 선택방법, 그리고 대학의 진로지도와 직업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2부에서는 경력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3부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문제점 및 성공취업전략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실 소장. (650.14 466가)

생활 속의 고풍이
정동호 지음, 유한문화사, 2003



우리 생활 속에서 고풍이라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고풍이라는 뜻밖의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페니실린으로 유명한 푸른곰팡이 뿐만 아니라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곰팡이들은 무척 많다. 그리고 개중에는 우리 몸에 아주 유해한 곰팡이와 우리의 재산을 해치는 곰팡이도 있다. 한번 읽어보면 유용한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

자연과학실 소장. (579.5 2225사)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지음, 도솔, 2004



동경대와 하버드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공부가 곧 수행이었던 소운스님의 걸어온 길을 적은 책. 선방이란 학교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수행이고 부처의 길이라는 것을 이역 만리 타국에서 깨닫고 그동안의 번뇌에서 해방되었다고.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곳곳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불교학자료실 소장. (214.48 3067g)

내가 읽은 책 이야기



김연수

미래를 준비하는 이의 안목을 키워주는 책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에 역사학자는 당연히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엿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연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자유한 안개 속에서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미래를 어렵게나마 짐작은 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지난 1월 LG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2010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이다.

트렌드(Trend)라는 단어의 뜻은 논리적·추세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나타날 것이 '유력한' 현상을 의미한다. '유력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개인성이 높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 미래학(futurology)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문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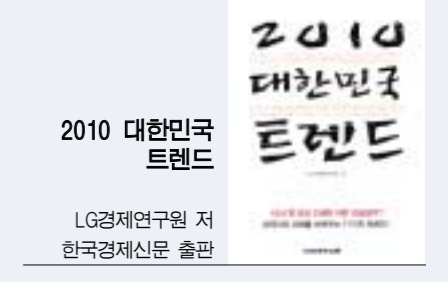
하지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5년 전에 우리가 작은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또 삼성전

자가 소니사를 앞지른 것은 어떤가. 자그만 이제 남성도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메트로섹슈얼리즘의 문화현상은 어떤가. 전화 한 통으로 집에 난방을 가동하고 가스렌지 위의 커피포트에 불을 지피는 유비쿼터스가 일어난 일은 어떤가. 인류의 진화의 진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발진 속도에 가속력이 더해져서 순간 순간이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바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 책 '2010 대한민국 트렌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소비자의 변화하는 성향, IT·BT가 선도하는 산업사회, 한국인의 민족성이 미래의 사회문화에 드러나는 양식, 이미 가시화된 고령화 사회의 문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추측

등이 이 책 환경에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 책에서 추측하는 내용들이 모두 현실화 될 예언자의 예언은 아니다. 다만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더듬이를 세우고 좀 더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제 차츰 꽃망울을 올리는 화사한 봄날, 나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가져다 줄 이 한편의 책, 2010 대한민국 트렌드를 추천해본다.



한방 테마파크 사업 진행 중인 BH바이오텍 대표 최병학 동문을 만나

“남에게 도움 되는 삶 살고 싶어 새로운 길 선택 했습니다”



게 지내고 있다는 최 동문을 만나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이야기와 모교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 서양의학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체 의학으로 동양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양의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중국과 우리나라뿐인데 반해, 한약재와 관련한 시장은 전체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국산 한약재들이 값이 싼데 반해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의 우수한 한방 기술과 한약재를 상품화시켜 세계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이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수년간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맑은 물과, 공기, 토양 등이 한약재 재배에 적합한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대학 때부터 한의학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데. = 대학 시절 한의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경주 캠퍼스에 위치한 한의대를 서울 캠퍼스로 이전해 줄 것을 끊임없이 학교 측에 제안하며 본관을 점거하는 시위까지 진행했다.

이러한 결과로 그 해부터 본과 3, 4학년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이유는 서울 캠퍼스에서 한의학과가 운영되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학교 발전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생들 역시 더 넓은 곳에서 활동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학 시절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한약 조제권과 관련한 약사들과의 의료 분쟁에서는 협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선두에 서서 사법까지 하는 시위를 감행했다.

앞으로는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의 우수한 한의학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에 전념할 계획이다.

- 100주년을 앞둔 학교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대학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떨어진 담배꽂이 하나조차 줍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0주년을 이야기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학교가 다른 대학에 뒤처진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후배들이 키워나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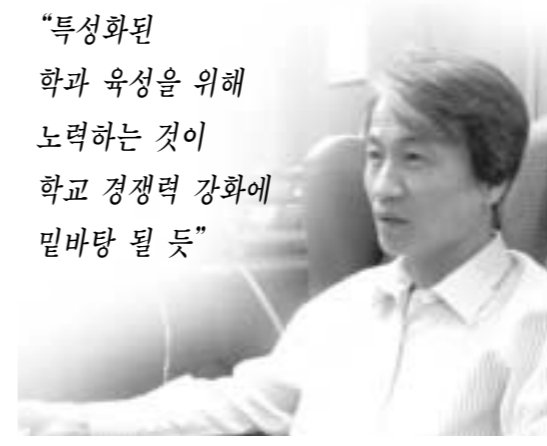
또한 학교 측에서는 학과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성화된 학과 하나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건설 중인 한방 테마 파크는 오는 7월 완공이후, 12월부터는 한의학과 관련된 치료센터, 연구소 등을 차차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우리의 우수한 한방 제품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약재를 연구하고 재배할 생각이다. 또한 이 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한의학의 5천년 역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특성화된 학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학교 경쟁력 강화에 밑바탕 될 듯”



서울 시내 2개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부부 한의사. 누구나 부러워 할 만큼의 명예와 재력을 갖추고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쉽게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탄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랜 꿈을 위해,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험난한 길을 택한 사람이 있다.

지난 13년간 하루 15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한의업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한의사가 과감히 사업에 뛰어들어 화제를 모은 우리학교 한의학과 출신 최병학 동문이 바로 그이다.

올해 7월 제주도에 한약재, 한방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및 치료센터, 연구소로 이뤄진 한방 테마파크 설립을 눈앞에 두고 하루를 이틀처럼 바쁘

동국건학 100주년을 함께 하는 사람들

I 중앙도서관 김종철 학술정보 서비스팀장



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를 내·외부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학생

들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내적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쌓아 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학내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도서관을 손꼽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김종철 학술정보 서비스 팀장을 만나 100주년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 우리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몸담은 지 올해로 20여년이 되고 있다. 이 대학을 졸업한 동문은 아니지만 100년의 역사를 맞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지난간 학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에 대해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번 기회를 중요한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의 전 주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되, 조금씩은 자신의 것을 줄이고 학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이어 최근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설 등 효율적인 학습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인 추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련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입비의 예산을 확충하고 자료 배치 공간의 확충 등에 대해 고민

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학습 이외에도 학생들이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독서 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할 것”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번 기회를 중요한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의 전 주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되, 조금씩은 자신의 것을 줄이고 학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00주년을 앞두고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독서 토론회, 저자와의 만남, 도서 평론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 역시 학교의 100주년을 알리는 데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독서퀴즈 왕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기회가 마련돼, 학생이나 교수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학습이나 연구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인물동정

김택근 동문 경향신문 사원주주회장



경향신문사 출판본부장 김택근 동문(국문 79졸)이 지난달 25일에 열린 경향신문사 사원주주회 정기총회를 통해 제8대 사원주주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종한 동문 수주영업본부장 선임



우리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이종한 동문이 지난 달 25일 남광 토건 수주 영업본부장에 선임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남광 토건 측에서는 주력사업 등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임이라고 밝혔다.

일산병원 이석현 의무원장

유럽소아정형외과학회 참석



우리학교 의무원장이자 세계 소아정형외과 학회장이자 이석현 원장이 오는 5일부터 5일간 스페인 남부 팔마에서 열리는 유럽 소아정형외과 학회에 참석한다. 이 의무원장은 이번 학회 참석을 통해 세계 소아정형외과학회(IFPOS)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수동정



△김선근(인도철학과)=오는 8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Varanasi India 국제학술회의 발표 참석.



△강호덕(신리자원학과)=오는 6일까지 외교 통상부와 KOIKA의 지원으로 임옥 개량 및 양모장 진성사업을 위해 출국.

전자공학과 황승훈 교수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승급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황승훈 교수가 IEEE(미국 전기전자공학회) senior member로 승급했다. 이번 승급은 학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member의 위치와는 달리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전 세계의 대상자 중 7~8%만이 부여되고 있는 선임이라 그 의미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4·19혁명 기념

제36회 동국인 등산대회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0:00~15:00
▶장 소 | 국립4.19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집결 : 오전 9시 30분까지 국립4.19묘지 내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2대 운행)
▶참가대상 | 모든 동국가족
▶행사일정

Table with 4 columns: 행사 내용, 장소, 시간, 유의 사항. Rows include 4.19혁명 기념 추모식, 개회식 및 출발, and 중식 및 하산.

▶팀 구성
•4인 1조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재학생팀 : 해외연수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제출 - 심사점수 반영)

-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
- 동아리 단체팀 : 20명 이상으로 구성

▶시 상

- 4인 1조팀
- 1) 세계로 가는 동국팀 : 총 9개팀 선발 (해외연수 비용 200만원 지원)
- 2) 알찬 문화생활팀 : 총 10개팀 선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증정)
- 단체팀 :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접수기간 | 2005. 4. 1(금)~4. 12(화) 09:00~17:00.

▶접 수 처

-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행정실
- 4인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공지사항

- 추모식 및 등산대회 행사 시 경건한 자세로 임하며, 4.19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
-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행사 참가자 전원의 합동 분향으로 진행함.
- 오전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 등산대회 시 출발, 중식시간 등을 엄수함.
- 도시락과 쓰레기 봉투는 각자 준비
- 시상식은 4월 19일(화) 다량관세미나실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 기념품 제작비용을 재학생들의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전액하였습니다.

※4.19혁명 기념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 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클럽 창립 준비 모임 및 오인환 삼성전자 마라톤팀 감독 초청 강습회

- * 일 시 : 2005. 4. 14(목) 13:00
- * 장 소 : 팔정도 → 남산
- * 참가대상 : 달리기를 좋아하는 동국인 누구나
- * 접 수 처 : 본관 학생복지실
- * 접수기간 : 2005. 4. 6(수) ~ 4. 13(수)
- * 선착순으로 50명에게 기념티셔츠 제공

※ 마라톤클럽의 명칭, 연습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준비 모임 후 결정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교내전화:3046)로 문의

- * 오인환 감독 경력 및 강습 내용
 - 동국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 삼성전자 마라톤팀 감독(이봉주, 권은주 선수 지도)
 - 스트레칭, 자세 등 마라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학생복지실 · 여학생실 · 동대신문사

주변과 하나되는 소리문화

연재기획 환경문화를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대학기에도 환경문화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이에 본사 문화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분야를 살펴보는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① 봉사부문 ④ 음악부문
- ② 건축부문 - 환경음악
- ③ 미술부문 ⑤ 르포

음악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부터 개인이 휴대하면서 듣는 mp3 플레이어까지, 현대인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장르도 다양하다. 대중가요, 팝송 등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중음악부터 클래식, 전문음악 등 마니아 층을 형성해 사랑받는 장르도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음악들이 '소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같은 음악이라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들리는 음악들을 사람들은 소음이라고 느낀다.

그렇다면 주변환경과 어울러지는 음악, 나와 주변환경을 생각해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음악은 없을까.

신경을 거스르는 듯한 인위적인 선율과 리듬을 흐트리는 음색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Ambient Music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생각한 대안이 될 지도 모른다.

'Ambient Music'을 번역하면 '환경음악'이다. 여기서 '환경'은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뜻한다. 즉, 이 음악은 주변을 생각하고 그 주변 환경과 어울러진 인간을 생각한다. 때문에 이것은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는 듯한 음향이여야 하며, 음악 자체에 명확한 선율이나 강조가 없고, 정적이며 일정시간 이상의 길이에 이르는 균질한 율림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된다. 때문에 감상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환경이 선행하는 음악이 바로 Ambient Music이라고 할 수 있다.

Ambient Music의 특징적인 면은 특정 음 자체 뿐만 아니라 음환경에까지 청각의 주의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음악 자체가 조심스럽고 편안함에 따라 주위 환경의 음도 함께 들린다. 자신이 있는 환경이 음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음환경 연구소 '부루'는 음악공학에 기초한 음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음환경 디자인을 모색·연구하는 곳으로 △동송동 낙산공원 환경음악 및 음향조형물 완공 △창원시 용주호수 프로젝트 완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부루의 한 관계자는 "쾌적한 음 풍경(soundscapes)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관련 활동가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환경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나 지원활동을 펼칠 필요가 더 많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형편이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인한 질병이 생길 정도로 각종 소리가 난무한다. 개인, 자연과 동떨어진 음악일수록 소음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소음에 시달린 자연도 피폐해진다. 음악이 점차 예술성 등 그 자체의 기능을 잃고 변질돼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음악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 어울러진 음악장르로의 정착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에 있는 음환경 조형물.

자살예방 문화행사 '인디아, 가자! 나를 찾아서!'

소중한 '나'를 느끼고 '희망'을 나눠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의 생명까지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존중사상'이 이어져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신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증가하는 자살률은 점차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

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기사랑과 자기 존중을 외치고 자 한국생명의전화와 인디예술가들이 뜻을 모았다. 오늘(4일)부터 이틀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리는 '인디아, 가자! 나를 찾아서!'는 I love myself(자기사랑), I respect myself(자기존중)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생명의전화가 주최하고 인디밴드, 인디독립영화감독, 인디 공연가들이 대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솔직한 젊음과 자유를 표현하는 '인디세대'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를 긍정적인 문화운동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생명의전화의 담당자 최정미 씨는 "최근 급증하는 자살률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이 행사를 통해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얻어 삶에 의욕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행사는 그동안 상담자와 상담원간의 1대1

대화가 아닌 열린 대중으로부터의 참여를 이끌어 내 서로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4일=인디아 가자 영화제(클럽 극장 P2), 예술제(마로니에 공원) △5일=인디백화 작업(마로니에 공원), 인디아 가자 노천카페(마로니에 공원) △4, 5일=인디밴드공연(클럽 SH) 등이다. 수익금은 전액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기금'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를 '자살방지 생명사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온·오프라인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주변의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말 한마디를 전달해주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매체비평

음악편

한국의 힙합

고난이도 라임 구사 등 꾸준히 발전해



Respect! 미국에서는 위대한 래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고 한다. 험상궂은 인상에 전과는 기본이며 대놓고 불한당을 존경한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조리는 가사-렘박에서 사랑고백, 사회비판에 이르는-를 들어 보면 과연 21세기 또 다른 시인의 모습은 바로 '래퍼'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말장난'과 '시'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극복한 래퍼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한글로 랩 가사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랩 음악은 언어유희, 말장난이라는 평가절하에 의해 언더그라운드로 숨어들었다가 '랩 슈퍼스타'의 탄생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실험적인 라임과 가사를 구사하고 있다.

1980년대 한국의 랩 가사가 '김,김,김 샷샷 샷 샷 샷' -홍서범의 김샷샷- 정도였다면, 1990년대 한국의 랩 음악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갔고 어른이란 이름으로 힘든 직장 갖고 생활하면서 이미 뺨안 얼굴은 갖고, 그런 걸 갖고 고생이라 말하고' -듀스 'go! go! go!'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사전달이 중요하지 라임은 중요하지 않다" 혹은 "라임에만 충실하다 보면 말장난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한국어는 영어랑 달라서 라임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오가곤 했다.

하지만 힙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라임 후

은 운율의 개념이 도입된 랩 가사들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래퍼들은 경쟁적으로 고난이도 라임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조아라 조아라 너무나 조아라/피리미 같은 무용단들은 떠나라/디제이와 엠시가 만든 힙합나라/저기 귀막고있는 너는 사요나라

-조피디 '피버(fever)' 중 위 가사의 경우 단순히 '-아라'라는 말로 운율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조(아라)-피(라미)-디(제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첫 음절에 삽입하는 센스(?)를 보이고 있는 곡이다.

때론 조용히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외로운 자만이 희망의 샘물을 먹진 않지, 그 샘물을 먹고 지리는 자신의 나무 한 그루, 안루(로) 들어감으로 보이네, 그 결실의 실한 열매가 맞히네, 노력을 이는 자에겐 땀방울이 맞히네

-가리온 '뿌리깊은 나무' 중 위 가사의 경우 '-이, -오로, -네'와 같이 비교적 평이한 라임을 사용하였으나, 초창기 랩 가사처럼 말장난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힙합음악은 래퍼들의 철학과 고민의 흔적이 담긴 라임연습장에서 비롯된다.

이미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 혹은 오버그라운드에는 '시인의 감성'을 지닌 수많은 래퍼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들이 더 많은 대중에게 '발견' 되는 순간을 기대해 본다.

신형관
m.net 프로듀서

문화캠페인

동국인! 문화인!

플리먼 보라!!

난잡하게 붙은 게시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장소=원흥관 4층 입구

사진=문화부